

응답하라 1988 그 시절 행복했던 추억 힐링으로 다가온 복고 열풍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돌풍 시청률 12.2%...시리즈 기록 경신 리메이크 OST 음원차트 석권 의류·제과·음료 복고 마케팅



1988년 인기를 끌었던 이미연의 가나 초콜릿 광고.

최근 솔자리나 각종 모임에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가 단골 이야기 소재로 떠올랐다. 주인공 덕선(1971년생)과 같은 세대인 40~50대 중장년층을 비롯해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10~20대들까지도 드라마와 관련한 저마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향수에 빠지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은 역대 '응답하라' 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8화에서 평균 시청률 12.2%(순간 최고 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응답하라 1994'의 11.9%(마지막 21화)를 뛰어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정봉(안재홍 분)의 사연과 까칠한 보라(류혜영)가 바람난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는 이야기 등이 펼쳐졌다. 덕선과 보라의 미래 남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시청률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률에 힘입어 드라마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도 대박을 치고 있다. VOD 매출(TV, 온라인, 모바일 전 플랫폼 매출 기준)은 지난 16~22일 일주일간 5억원을 거둬며 시장과 포함 전체 프로그램 매출 2주(9~22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드라마 속 캐릭터의 친근함에 있다. 독서실만 가면 프라이밍 영아사전이나 정석을 뒤편에 앉을 때 자는 덕선이는 아랫집에 살던 아이였다. 공부 잘하지만 '이기적인 언니'인 보라와 순하기 그지없는 대입 6수생 정봉도 옆동네에 사는 형, 누나들이었다.

1980년대 학생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응답하라 1988'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서울대 법대 대신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1년 장학금 받고 들어간 보라와 함께 2000원짜리 바나나를 세 식구가 나눠먹어야 하는 전교학생회장 선우의 모습에서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시절 청춘들에게 취업난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었고 가난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드라마 속 음악이나 패션, 식품 등 각종 장치들도 빼놓을 수 없는 흥행요인이다. 이 드라마 OST

(오리지널사운드트랙)가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며 다시한번 드라마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음원사이트 멜론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밴드 혁오의 보컬 오혁이 부른 이문세의 '소녀'(1985)가 1위, 박보람이 부른 동물원의 '해화동(혹은 상문동)'(1988)이 2위, 이적이 부른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2004)가 4위, 김필이 부른 산울림의 '청춘'(1981)이 10위에 올랐다. 다른 차트에서도 이 곡들은 1위를 비롯해 10위권에 진입했다.

또한 드라마에는 당시 가수들의 원곡이 대거 삽입돼 40대의 귀를 자극한다.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를 비롯해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 조덕배의 '나의 옛날이야기',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등 1980년대 히트곡들을 오렌만에 들을 수 있다.

스토리 전개 곳곳에도 음악이 시대감을 높이는 재료로 적재적소에 쓰였다. 극 중 라디오에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흐르고 TV 속 '가요 톱 10'에선 당시 여고생 가수 이지연이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는데'를,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상은이 '담다디'를 부르는 모습이 등장한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고(故) 신해철의 무한궤도가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드라마가 선사하는 재미 중 하나는 1980년대 깨알 같은 소품을 보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유행영등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빈폴과 케이스위스는 '응답하라 1988'의 류준열, 고경표, 류혜영, 박보검을 모델로 발탁해 새롭게 출시한 복고풍 패션의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롯데제과는 '응답하라 1988'에서 매회 빠빠로, 월드론, 가나초콜릿, 수박바 등 인기 제품을 당시 디자인 그대로 노출하며 간접광고(PPL)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덕선의 꿈속에서 80년대 이미연이 모델이었던 가나초콜릿의 TV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롯데제과는 가나초콜릿의 후속 광고모델로 드라마의 주인공 해리를 발탁해 가나초콜릿의 2015년판 광고를 선보이고, '응답하라 1988 추억의 과자 판매전'을 열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속 청정패션.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상은의 '담다디'

청춘들의 미술 열정 후원합니다

내달 4일까지 '전남대학교 서양화 전공 아트페어'



김건 작 '입춘'

졸업생·교수도 참여 작품 100여점 출품

삼포시대가 빼앗아 버린 미술에 대한 열정을 후원하는 행사가 열려 화제다.

'전남대학교 서양화전공 아트페어'가 12월 4일까지 전남대학교 컨벤션센터 용지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의 서양화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창작열정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양화 전공 학생 36명을 비롯해 격려와 후원 차원에서 대학원생과 졸업생, 교수, 강사 25명이 참여해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부제는 '좋은그림 착한가격 큰감동'이다. 실제 수준으로 작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학부생들은 프로필란에 몇 건 안되는 현 경력자 아니라 '10년 후 나의 프로필'을 써야 작품활동에 대한 각오와 비전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서기문교수는 "알바에 녹초가 되어 작업을 저 멀리에 뺄까쳐두고 있는 재능있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며 "판매실적을 중시하는 아트페어 전시활동 경험을 통해 화가 지망생들의 경제자립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30-30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다시 보는 은하철도 999 꾸꾸꾸꾸 생명평화 영화제

내달 3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꾸꾸꾸꾸 생태 읽기 모임'이 주최하는 제9회 '꾸꾸꾸꾸 생명평화 영화제'가 오는 12월 3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1979년작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극장판 1기다. 많은 이들에게 TV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작품이다.

먼 미래의 지구, 기계 백작에게 엄마를 잃은 데즈로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신비로운 여인 메텔의 도움으로 은하철도 999호에 오른다. 데즈로는 각각의 우주정거장을 거치면서 안타레스 산적과 하록 선장, 그리고 여해적 에

메랄다스, 우주전사 도치로와 우정을 나누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컵을 가져오면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눠준다. 또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다른 물건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 문의 010-4635-85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객들 요청 쇄도... 조성진 쇼팽 갈라콘서트 추가공연 확정

조성진 열풍으로 내년 2월 예정된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들의 국내 첫 갈라콘서트가 당초 계획보다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갈라 콘서트는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쇼팽 콩쿠르 본선을 그대로 재현하는 무대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을 비롯해 사를 리샤르 아플랭(2위), 게이트 리우(3위), 에릭 루(4위) 등 모든 입상자를 한 자리에서 볼 기회다. 당초 내년 2월 2일 오후 8시 예술

의전당에서 한 차례 예정된 콘서트가 지난 달 29일 티켓 예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매진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의 추가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이번 콘서트의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추가 공연 협의에 나서 같은날 오후 2시 추가 공연을 성사시켰다. 티켓은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클럽박스네트 등에서 동시에 판매를 개시한다. 관람료 4만~18만원. 문의 1577-5266. /연합뉴스

造化 命學 謬 誼 說 全 祝 發 刊

총16편 259장 357절 외 의고15秘傳 (판형 19.6×26.6cm) 907p

命은 天地所賦 人所稟受요 學之爲言은 効라 萬象의 生死法則으로 엮어진 命理秘書가 國內는 물론 世界의 易醫學 研究書이며 특히 韓醫學의 지침서라 할 정도로 病藥說化 收錄했고 배우고 연구하며 알고 시는 시대로 變천함에 無師自通의 書冊이 發行되었다.

- 天命의 품수대로 살아가는 인생 알아야 흥액을 피해간다.
- 時流따라 음양오행을 연구하는 시기 맞추어 명학유익설이 출간되었다.
- 현명한 후손이 나와야 가문 발전한다. 부부상합에서 출생이치 책속에 들어있다.
- 궁합이론과 질액 사주판단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세계인이 읽어야 할 교서이다.
- 사상의학이나 오운육기의 어려운 학설보다 더 빨리 질액판단할 수 있는 비고의 서책이다.

- 1. 음양오행의 법칙이란 만상의 변화법칙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의 근본이다.
- 2. 정신기의 법칙이란 천지도리 만상의 주체 순리의 본시이고 천지신명(三神)의附이다.
- 3. 천신의 강약에 음은 순응하고 따르는 공간에 기의 유동함이 삼리만상의 생사법칙이다.
- 4. 천지신명 삼신의 시후와 남녀정신이 맞아야 입태됨을 논리했다(天命精確論)
- 5. 음양이치를 통달하면 도학의 경지를 넘어 현달한 선사일 것이다.(精神氣三神論)

◎ 本 命學謬誼說은 後日 道學者가 評價할 것이다.

- 一. 下元甲子시기 때 맞추어 보태하고 사주 맞추어 개복하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다.
- 二. 격국을 도표하여 숙견표화했고 十干의 강약과 통변의 이치를 알기쉽게 논리했고 복습고중 1040구절을 말미에 정리한 신비의 책이다.
- 三. 六十甲子를 寅申巳亥柱 二十子午卯酉柱 二十辰戌丑未柱 二十強弱구분 정리했다.
- 四. 甲子~癸亥까지 각주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시기 득실을 표시했다.
- 五. 十干을 十二支月 분석 조건표 과감유준 상격用 희기신 숙견표 정리했다.

- ◎ 天神下降 地神順應 制化之中 多端人生
- ◎ 貧富得失 在於生剋 論命知理 強弱窮通
- ◎ 天地精神 年月日時 中和之勢 富貴無疑

남화정출판사 · 남화정역리원
 編著者 역학강사 新知識人 鉉山 金 鎬 瑒
 주문전화 : 062)522-9653 농협계좌 : 302-8645-2254-81
 ◎造化秘評+命理秘訣+책값壹拾五萬圓

※ 萬物은 陰陽五行法度에 依하여 天神에 順應하며 宇宙運行法則대로 天地神明의 精氣를 받아 順利의 天稟대로 自然攝理 變化에 따르기에 人命은 在天이다.